

종단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나서야

기획 출가자 금감, 대안은 없다

③ 행자생활 이대론 안된다

행자는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6개월 과정을 거쳐야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는 수계교육에 입학할 수 있다. 많은 스님들은 “행자시절에 지은 복으로 중노릇 한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행자 때 열심히 대종을 위해 일했다는 의미다. 요즘 행자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행자는 사람이 아니다.” 놀랍게도 행자들끼리 하는 얘기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한 일을 강요당하고, 스님도 아니고, 재가자도 아닌 신분으로 사찰에서 하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출가했다 사회로 돌아가는 인원이 적지 않다. 2012년 종단 등록행자 320명 가운

데 90명(28.1%)이, 2013년에는 322명 중 79명(24.5%)이 절을 떠났다. 높은 환속률인 반면 중도에 포기하는 행자들 수만 줄여도 출가자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환속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자생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행자교육에 관한 령’에 따르면 종단의 행자교육은 일상교육과 입문교육, 본사교육, 수계교육으로 구분된다.

3박4일간의 입문교육과 수계교육이 의의라면, 일상교육과 본사교육은 전적으로 사찰의 책임이다. 하지만 교육실상은 열악하다. 교육원이 2013년 입문교육에 참가한 106명의

은사나 상행자와 갈등
 털어놓지 못하고 ‘꽁꽁’
 온갖 허드렛일 도맡으며
 ‘행자는 사람 아냐’ 자조

체계적인 일상교육과
 실행상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교육기관이 대안

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제대로 행자를 보살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사찰에 교육책임자 스님이 있는 경우는 78.4%이고, 나머지는 사찰에 교육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교육이 없는 경우가 25.7%에 달

했다. 정기교육은 주 1회(20.3%)가 가장 많았고, 주당 하루 정기교육 시간은 1~2시간(33.8%)이 다수였다. 반면 행자들의 과반수가 넘는 62.9%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문교육에서 만난 한 행자는 부모님의 권유로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틈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행상담이나 지도부재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 행자들이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인간관계(3.26%)와 사찰생활적응의 어려움(11.6%)을 겪지만, 누구에게도 상담할 적이 없다(47.6%)는 행자가 절반에 가깝다. 동료행자들이 하산한 이유도 인간관계와 사찰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가상담사 효록스님은 “행자들을 상담하다보

면 열에 일곱은 대인관계문제를 겪는데 다수가 은사 스님이나 사형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한다”며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속의 욕망을 다스리고 인연의 스승이 되겠다고 출가한 행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낮은 사찰생활과 새로 맺는 승가의 인연과 마찰 때문에 환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행자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원은 이미 시행 중인 외국인행자교육원 같은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행자교육원 상설화를 위한 예산도 12억원 가량 확보하고 있지만, 사찰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상설행

자교육원은 본말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한 곳에 모아 3개월간 혹은 6개월간 염불과 습의는 물론 출가자로서 위의 등을 가르치는 곳으로, 출가자로서의 고민이나 진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곳에선 교육과 의례의 통일화도 가능하고, 은사 스님이나 사형과의 갈등도 최소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교육원에서는 외국인 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자교육원을 화계사에 설립, 한국어와 불교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스님은 “기성세대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승가의 문화가 요즘 세대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 빛어지는 갈등”이라며 “본사를 고민하고 있다. 행자교육원 상설화를 위한 예산도 12억원 가량 확보하고 있지만, 사찰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상설행

독립된 막사
 장병도 보듬어야



“모든 군인들이 군생활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 속에서 군복을 입고 명동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지막 꿈이자 희망입니다.” 지난 7월 만났던 3성 장군 출신의 송영근 국회의원이 말한 ‘인생의 3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다. 예비역 장성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최근 들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군에 대한 시선은 차디차기만 하다. 최근들어 잇따른 폭력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 군대 내 사건사고를 지켜보면 엇기적인 잔혹한 행태도 적지 않아 슬픔은 금세 분노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군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기만 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먼저 22사단 총기난사사고와 28사단 유일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관내 사단에서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49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대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천도법회를 거행한 것도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러 재발방지와 화목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장병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소통, 화합할 수 있도록 법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GOP 등 독립된 소규모 공간에서 군대 내 사건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곳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때다. 아무래도 감독의 눈길이 덜 미치다보니 선임병사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법당에서의 일요법회도 중요하지만 독립된 소규모 막사에 대한 ‘찾아가는 법회’ 내지는 ‘격려방문’도 펼쳐야 할 때다.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법회와 미사 참가 등 종교활동의 자유마저도 차단하는 선임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간 의사 결정기구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부속기구에 의제를 제안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UN ECOSOC 특별협의의 NGO 지위를 획득한 국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불교계 단체로는 한국JTS가 지난 2007년 1월 특별협의의 NGO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염태규 기자

햇팩 이어 면장갑 33만 켤레 전달

군종특별교구·불교TV

두 번째 군장병 위문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스님)는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2차 사업으로 면장갑 33만 켤레를 전국 48개 부대 장병들에게 전달했다.〈사진〉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은 지난 7일 화진 육군7사단을 방문해 면장갑 전달식을 갖고 군장병을 격려했다. 5000여 만원을 들여 마련한 33만 켤레의 면장갑은 최전방 철책선 부대와 예비사단의 동계작전



준비는 물론 해안경계 부대, 내륙 작전부대 진지공사 작업용, 서해5도 경계근무 부대, 울릉도와 독도 경비 등 격오지 근무 군장병의 월동준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이어 군종특별교구는

로터스월드 “공신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획득

불교계 국제개발NGO 로터스월드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의 NGO 지위를 획득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는 지난 4일 “UN 경제사회이사회가 7월21일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에 대해 특

별협의 지위 NGO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UN ECOSOC는 경제, 사회, 보건 분야의 국제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UN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대해 협의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로터스월드가 UN ECOSOC 특별협의의 지위 NGO로 자격을 갖추으로써 앞으로 UN ECOSOC 산하 각종위원회와 공

개회의, UN총회, 인권이사회, 정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제16교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8년 성과 토대로 더 열심히 해 달라”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임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호성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성스님은 지난 4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단독 임후보해 만장일치로 주지 후보로 선출됐으며 이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고운사 주지 소임을 3번 연임하게 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열심히 하고 화합하니 소임을 또 다시 맡게 됐다

는 불교신문 인터뷰 기사를 잘 봤다”면서 “주지 소임을 맡은 지난 8년 동안 지역교교와 복지사업 등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열심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앞으로도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등 시설을 통해 소외된 이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10·27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김희범 차관,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희범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차관 임명을 축하하며 앞으로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희범 차관은 “G20 정상회담 임무를 맡으며 서울 봉은사와 업무협의를 하는 등 종단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조



언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스님은 김차관이 당면적 위원을 맡고 있는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언급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범 차관은 “10·27법난에 대한 중요성을 실무적으로도 잘 헤아리고 있다”면서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불기2558(2014)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공고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58(2014)년 2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2558(2014)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시행일시 : 불기2558(2014)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경기도 김포 소재)

응시자격 : ① 2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비구 중역 또는 비구니 정역 법계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3조에 의한 연수교육 수료증수 120점 이상(일반과과정은2014년 9월 20일까지 교육원로시 인정, 인종과정 및 지원봉사과정은 2014년 9월 20일까지 교육원에 보고완료시 인정)을 취득한 경우
2. 1999년도에 구국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역 또는 비구니 정역 법계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 2 제4항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3조에 의한 연수교육 수적점수 120점 이상(일반과과정은2014년 9월 20일까지 교육 원로시 인정, 인종과정 및 지원봉사과정은 2014년 9월 20일까지 교육원에 보고 완료시 인정)을 취득한 경우

조계종 홈페이지 알림판(배너)을 통해 게시된 ‘2014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 하단 ‘2급, 3급 승가고시 응시 지원자격 획득을 위한 소임 신고 지침’을 참고하여 승가고시원서 제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주임 권지은 02-2011-170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였더라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권리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 횟수 8회를 기준으로 1~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2. 2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대중경계 및 포살(결계록 등재) 확인은 조계종 홈페이지 ‘승가고시 알림판(배너)’을 통해 공지된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람.(2008~2009년 대중 결계록은 포함되지 않음)

※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사항 문의 : 총무부 승재팀 주임 (02-2011-170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소재 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 승가고시 알림판(배너)을 통해 게시된 ‘2014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 하단 첨부자료 또는 교구본사 비치용)

나. 수행이력서 (소재 양식 : ‘위와 같음’)

다. 비구 중역 또는 비구니 정역 법계수지 후의 수행이력 증명자료(1. 대학원 수학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출입증명서’, ‘학위증명서’ 2. 각종 소임경력적의 경우 ‘재직증명서’ 3. 기타 수행 및 소임이력을 증빙할 각종 증명서 4. 국가기관이 인정한 각종 자격증) 라. 수행이력서는 수행 및 교육, 전법 · 교화활동(포교, 소임, 대사회활동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특히 수행이력은 신사 ·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기 바람.

마. 2, 3급 승가고시 소임 인정 신청서(제출된 소임 인정 신청 서류는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으로 이첩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14년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나. 접수처 : 1.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교구본사 총무소

2.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서울 중로구 건지동 45 110-175, 5담당: 양진호 행정관 ☎ 02-2011-1809) ※ 해당교 소임 인정불가, 마땅치 도복제 한함

전형료 : 10만원

가. 전형료는 원서를 제출하는 교구본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재적 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23-01-0534-462),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다.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미납 시 서류전형 제외), 서류전형 탈락의 이유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고시내용 및 배점

교시	시 간	고시 내용	배점
1교시	10:00 ~ 11:10	〈논술〉분야, 〈설법시연〉분야 중 택 1	100점
	11:10 ~ 12:30	참성공양	
2교시	12:30 ~ 16:00	수행이력 평가 및 개별 면접	200점
		합 계	300점

합격기준 : 〈논술〉분야 또는 〈설법시연〉분야의 점수가 40점 이상으로서 총점 180점 이상

〈논술〉분야, 〈설법시연〉분야 : 수행이력 평가 및 개별면접 방법

가. 〈논술〉분야

1. 시험과목 : ‘수행선 · 교 · 율분야’, ‘포교 · 사찰운영분야’ 중 택 1
2. ‘수행선 · 교 · 율’분야, ‘포교 · 사찰운영분야’의 논술에 출제된 ‘논술주제’는 각 6개씩, 총 12개임.(조계종 홈페이지 승가고시 알림판(배너)을 통해 게시된 ‘2014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 하단 첨부자료 참조)
3. 사전 제시된 분야별 6개 ‘논술주제’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에 3문제가 출제되며, 응시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함.(2,000자 내외)

나. 〈설법시연〉분야

1. 설법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년, 직장인, 공무원, 일반불자, 환자 및 임종자 등 설법대상자를 임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선택함.
2. 설법주제는 선택한 설법대상자에 맞추어 응시자가 자유롭게 정함.
3. 응시자는 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설법주제’ 및 ‘설법대상’을 기재하여야 함.
4. 응시자는 고시당일 접수처에 〈설법시연〉때 사용할 설법문안 요약문(소재양식 : ‘2014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 하단 첨부자료 참조)을 제출해야 함.
5. 승가고시 당일에 응시자는 설법청취단과 설법평가위원 앞에서 10분간 설법을 시연함.
6. 설법평가 방식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법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다. 수행이력 평가 및 개별면접

1. 수행이력평가는 응시원서에 첨부되어 사전 제출된 수행이력서를 바탕으로 평가 위원이 별도 평가함.
2. 개별면접은 응시자가 제출한 수행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응시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합격자 발표 : 2014년 10월 15일(수) 오후 2시(조계종 홈페이지에 수험번호로 공지)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시 〈논술〉분야와 〈설법시연〉분야중 하나를 선택해야함니다.

나. 〈논술〉분야를 선택한 경우 ‘수행선 · 교 · 율’분야, ‘포교 · 사찰운영분야’ 중 하나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함니다. 선택사항은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 ‘가, 가습제, 몸무게’ 등은 가사제직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니다.

라. 휴대전화번호는 승가고시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니다.

마. 승가고시의 응시자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 불교신문 공고 및 조계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람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승가고시 합격이 취소됩니다.